

중세 적대적 유대 정서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연구*

이 필 은**

목차

들어가는 말

I. 역사연구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접근

II. 적대적 유대정서를 담고 있는 내러티브

III. 적대적 유대정서를 담고 있는 내러티브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

나오는 말

들어가는 말

13세기 후반부터 프랑스, 독일, 영국지역에 적대적 유대 정서를 담고 있는 내러티브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13세기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나 대량학살과 폭력을 동반하는 것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11세기 이전까지 소수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12세기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332-A00002).

** 나사렛대학교 기독교학부 조교수

를 기점으로 서유럽에 대거 이주하였고, 이시기에 교회의 선교 정책과 맞물려 적대적 유대 정서가 구성되었다는 입장도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윤추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상업, 무역, 고리대금 등의 업종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12세기를 거치면서 일반 가톨릭 교인들이 상업에 진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과 충돌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고조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당시 가톨릭교회의 교권에 대항하는 이단들의 출현으로 가톨릭교회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었고 교회가 종교적인 헤게모니를 되찾고자 타종교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던 측면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적대적 유대 정서는 서유럽의 국제정세와 깊은 연관을 가지면서 확대되고 대량학살이라는 사건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 대중이 이러한 적대적 유대 정서를 공유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적대적 유대 정서 형성과 확장의 과정을 문화사회학의 입장에서 조망해보는데 있다. 문화사회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적대적 유대 정서의 확산에는 신학적이고 교권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설명하면 본 연구는 적대적 유대 정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문화사회학적 측면에서 당시 적대적 유대 정서를 불러일으킨 다양한 내러티브, 상징 등의 역사적 사실여부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이후에 유대인 대량학살이라는 개인의 판단과 행동을 가져오게 한 인식에 근거하여 적대적 유대 정서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적대적 유대 정서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접근을 통해서 유대인에 대한 중세 기독교인들의 인식을 행동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찰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문화사회학적 접근은 적대적 유대 정서를 가져온 코드와 서사와 같은 문화적 요소들의 중요성을 드러내준다. 중요한 것은 당시 이러한 코드와 서사를 통해서 선과 악이라는 이항대립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대립은 가톨릭 교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과 악 또는 성과 속이라는 대립적 구조는 드물지만 유대인들 안에서도 구성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적대적 유대 정서의 형성과 확장에 대한 문화사회적 연구를 통해서 가톨릭교회 집단의 행위와 유대집단의 반응에 나타난 집단의식을 고취시키는 과정가운데 담겨진 문화적 요소들 - 코드, 상징, 서사, 감정, 의미- 등을 밝혀냄으로써 이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공헌을 하게 된다. 물론 적대적 유대 정서와 관련하여 경제적, 정치적, 신학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문화적인 요인의 중요성도 인식할 수 있다. 이 문화사적 접근은 대량학살을 가져온 적대적 유대 정서의 발단, 전개, 결과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이 새로움은 본 연구의 의의도 드러낸다. 적대적 유대 정서들에 대한 연구들 중 문화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필자가 아는 한 전무하다. 연구의 순서는 먼저 문화사회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중세 말에 다양한 부정적 유대정서를 담지 한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유대교에서 구축한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I. 역사연구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접근

문화사회학은 알렉산더(Jeffrey Alexander)와 스미스(Phillip Smith)에 의해서 강조되는 접근방법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경제나 정치 구조와 함께 문화구조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그들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거할 수 없는 요소인 무의식적인 문화구조를 밝히는 것이 문화사회학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¹⁾ 이러한 무의식적인 문화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그들은 사회를 하나의 텍스트로 보면서 이러한 사회적 텍스트를 구성하는 코드와 서사에 관심을 가졌다. 문화사회학자들은 기존의 문화와 사회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학문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특별히 문화에 대한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을 간과하는 문화분과사회학(Sociology of Culture)과의 구분을 시도하였다.²⁾ 문화분과사회학은 문화적인 활동이 만들어낸 생산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문화사회학은 이러한 문화적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피터슨(Richard Peterson)은 문화분과사회학은 문화적 활동이 가져온 시장 경제의 분석에 관심을 가지며 문화적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다.³⁾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분과사회학은 사회학의 하나의 분과로서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사회학은 문화분과사회학을 인정하지만 문화적 활동이 가지는 의미에 더 관심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 Jeffrey C. Alexander, 『사회적 삶의 의미: 문화사회학』, 박선웅역. (과주:한울, 2007), p.26

2) Phillip Smith, 『문화이론: 사회학적 접근』, 한국문화사회학회 역 (서울: 이학사, 2008).

3) Richard A. Peterson, "The Production of Culture: a Prolegomenon," in Richard A. Peterson ed., *The Production of Culture* (CA: Sage, 1978).

문화사회학자들이 정의하는 문화의 개념은 기어쓰(Geertz)의 설명에 기초한다. 그는 문화를 “공유하는 상징들과 의미 체계 또는 유형”이라 정리하였다.⁴⁾ 문화는 “공유된”이라는 집단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문화가 단순하게 상징적이라는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구체화(embodied)되고, 실천되고,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문화사회학자들은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비판적 매개변수를 간과하지 않으면서 문화의 집합성을 드러내려 시도한다. 그래서 문화사회학자들은 문화적 영역의 복잡성을 분류하기 위해 답론, 기술 민족학(ethnography), 면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문화사회학자들이 사용하는 내러티브는 이해를 가능케 하는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이콥(Margaret Jacob)에 따르면 내러티브가 의미를 만들기 있는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을 유발하게 하기 때문이다.⁵⁾ 역사 연구에서 내러티브의 분석을 시도하는 문화사회학에서는 행위자가 성과 속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을 사용하여 사건을 인지한다고 가정한다.⁶⁾ 성과 속의 이분법적인 코드는 성과 속으로 구성된 코드를 말한다. 이 코드는 은유적 연쇄-유사성의 원리에 의해 구성된다. 유사성의 원리란 유사한 개념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한다는 말이다. 행위자들은 이 코드를 통해서 행위를 결정하게 된다. 알렉산더는 이러한 이원성의 대립이 모든 인류 사회의 본질적 특성임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대립을 통해서 사회의

4) Clifford Geertz, “Thick Description: Toward an Interpretative Theory of Culture.” In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1973), p.89.

5) Margaret Jacob & Joyce Appleby, *Telling the Truth about History* (New York: Norton paperback, 1994), p.236.

6) 최종렬, 『뒤르케임주의 문화사회학: 이론과 방법론』, (서울: 이학사, 2007).

현상과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단순화된 이분법적인 사고를 통해서 사회를 분석하게 되면, 사회의 다양성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코드의 사용은 일상사에서 관찰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일상이 아닌 사회가 혼란을 겪을 때, 이러한 코드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알렉산더에 따르면 악은 코딩을 통해서 사건이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행위자는 코딩을 통해서 사건을 인식하고 행위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사회학은 이러한 코드, 내러티브, 의례, 상징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코드는 성과 속에 대한 코딩이다. 이러한 코딩은 사건의 의미를 규정해내기 위해서 서사를 요구하게 된다.⁷⁾ 그리고 서사는 플롯, 인물, 장르라는 구성요소를 지니며 개인과 집단은 자신들이 겪는 시간상의 변화 혹은 사건을 이야기를 통해 이해하도록 도와준다.⁸⁾ 내러티브는 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는 두 집단이 서로 다르게 인식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건은 상호 다른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면, 상호 대립된 공동체에 대한 이해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⁹⁾ 이러한 내러티브와 코딩은 사람들에게 인지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반응하도록 한다. 그리고 문화사회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러티브, 코딩, 상징, 의례 등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성스러운 것을 위협하는 속에 대한 강한 반대적 감정을 갖도록 함으로써 성을 옹호하고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장치는 공동체의 안정과 통합을 이끌기 위하여 집단적인 폭력을 이끌고 이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7) Jeffrey C. Alexander, 2007, p.81.

8) 최종렬, 2007, pp.130~131.

9) 윗글, pp.132~133.

사회과정이나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는 문화사회학적 접근을 역사 연구의 분석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임에는 분명하다. 이러한 접근은 역사 연구에서 공동체의 집단적 행위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역사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접근은 역사의 정치적, 경제적 해석을 존중하면서 문화적 요인을 함께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II. 적대적 유대정서를 담고 있는 내러티브

1475년 트리엔트(Trent) 지역에서 시몬(Simon)이라는 소년이 실종된 며칠 후 시체로 유대인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예시바 사본(Yeshiva manuscript)은 1478~1479년에 이 사건을 다시 문제 삼아 이야기를 재구성¹⁰⁾하면서 시몬을 어린 순교자로 추앙하는 내용이 기록되었다. 이야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시몬은 1475년 3월 25일 시몬이 실종되었다고 보고하고 26일 유대인 사무엘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시몬의 시신을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데려오자 시몬의 시신에게 갑자기 피가 흐리기 시작하였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것을 신의 계시로 믿었으며 6명의 유대인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처형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트리엔트의 힌더바흐(Hinderbach) 감독은 시몬의 이야기를 전단지, 그림, 교황을 설득함으로써 시몬을

10) 재구성의 근거는 YM 문서 안에서 목격자에 대한 진술이 반복되는 등의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Trent에서의 소년 순교자 Simon을 기록한 문서는 YM 문서를 포함하여 11개의 기록이 있다. 그리고 YM의 문서는 다른 문서들과는 다른 진술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이다. R. PO. Chia Hsia, *Trent 1475 Stories of A Ritual Murder Trial* (Conn.: Yale Univ., 1992).

순교자로 공식적으로 선포하도록 하였다. 호시아(R. PO Chia Hsia)는 YM과 다른 문서들에 흩어져있는 내용들을 수집하여 내러티브의 형성과 변화를 추적하였다. 1348~50년에 유대인 대량학살은 내러티브가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적대적 유대정서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하였다.¹¹⁾ 물론 적대적 유대 정서에 대한 정치적, 신학적, 경제적 논쟁이 있었으나 내러티브들이 일반 평민들에게 깊숙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트렌트의 사건은 종교 의식에서 기독교어린이를 제물로 사용한다는 유대인에 대한 내러티브와 가톨릭교회의 성자에 대한 이야기가 결합하여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 형성을 통해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중세 말로 접어들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보편적 적대감을 형성하였다.



그림은 트렌트의 시몬에 대한 내러티브를 목판화한 것이다.¹²⁾ 시

11) R. Po. Chia Hsia, *Trent 1475: Stories of Ritual Murder Trial* (Conn.: Yale Univ., 1992).

12) Woodcut by Wohlge-muth, from G, Liebe, *Das Judentum in der deutschen*

문과 유사하거나 같은 내용의 성인기로는 최초의 작품인 1144년 윌리엄 (William of Norwich) 성인기와 1255년에 영국의 휴 (Hugh of Lincoln)¹³⁾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¹⁴⁾ 그리고 14세기 초서 (Chaucer)의 『수녀원장 이야기』(The Prioress's Tale)는 링컨의 휴 (Hugh of Lincoln)의 이야기를 기초로 한 것으로 같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¹⁵⁾

유아살해의레만이 아니라 폭력을 수반한 유대인에 대한 내러티브로 성체 파괴를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파리에서 1290년 있었던 사건이 있다. 이야기는 사치스럽고 욕심 많은 기독교 여성이 성만찬을 받은 후 이를 먹지 않고 입속에 감추어서 20 사우스를 받고 유대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선량한 한 여인이 성체를 파괴하는 것을 목격하고 교구사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사제는 이 사실을 파리의 시몬 (Simon Mattifart de Bucy, 1290~1304) 감독에게 알렸고, 감독은 신학 전문가에게 이 사건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유대인들은 유죄로 판명되고 세속 권위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였다. 아버지는 사형을 당하면서, 당시 화체설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서적을 요구 하였고, 아버지와 책은 재로 남겨졌다. 유대인이 성체를 파괴할 때 이것이 부당한지를 알지만 고소를 못하였던 아내와 아들은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았다.¹⁶⁾ 파리의 사건은 연관된 사람의 이름과 상황 등을 자세하게

Vergangenheit (Leipzig, 1903)

13) Hugh of Lincoln은 이야기 형식이라기 보다는 발라드 형식으로 전승되어왔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rancis James Child, *The English and Scottish Popular Ballads*, vol. 3 (New York: Cooper Square Publishers, 1962) pp.233~54

14) 유대인들의 유아살해 의식에 대한 기원과 역사적 전개를 밝히는 책으로는 다음을 참조. Gavin I. Langmuir, *Toward A Definition of Antisemitism*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90).

15) Victor Tcherikover, *Hellenistic Civilization and the Jews* (Philadelphia, 1959), pp.366~67.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본 회심한 유대인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화형당한 유대인의 집은 성지로 지정되고 그 터에 예배당이 건설된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이일을 지혜롭게 처리한 감독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평안을 찾는다(17). 이러한 내러티브는 계속적으로 되풀이되어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특별히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에 남서부 독일과 북이탈리아까지 급속하게 퍼져나갔다.(18)

물론 이러한 내러티브는 유대인들을 영국, 라인지방, 알자스, 스와비아, 바이에른,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등에서 추방하는데 적당할 구실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추방은 15세기까지 계속되었다.(19) 그리고 이러한 내러티브는 추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오는 폭력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1298년 4월 20일 부활절에 뢰팅엔에서 21명의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였다.(20) 이러한 죽음은 1305년에 코루네우브르크에서 1338년 헨터렌드에서도 나타났다.(21) 그리고 이러한 폭력을 통한 학살의 장소는 이후에 가톨릭교회의 중요한 성지순례의 장소로 승화되었다.

16) Paris Archives Nationales L663; Paris Archives Nationales L1492B.

17) 'In illo loco civitatis Parisiensis, in quo quidam Iude...', *The Apostolic See and the Jews, Documents*, I, ed. S. Simonsohn, PIMS Texts and Studies 94, Toronto, 1988, no. pp.275, 283~4.

18) Miri Rubin, *Gentile Tales: The Narrative Assault on Late Medieval Jews*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ess, 1999), 45. 이러한 내러티브는 Saint Denis에 역할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다. 1330년대와 1340년대에 Giovanni Villani가 *Cronica*에 'D'uno grande miracolo ch'avenne in Parigi del Corpo di Cristo' 에 기록하였다.

19) Ibid., pp.46~47.

20) 'Continuatio Florianensis', *MGH.SS IV*, ed. W. Wattenbach, Hanover, 1851, p.751.

21) 이에 대해서는 Miri Rubin, *Gentile Tales*, pp.40~70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내러티브로는 유대소년과 성모 마리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유약 칠을 하는 유대인 직공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인 친구와 함께 지역 교회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게 되었다. 아이는 아버지에 이 사실을 말하자 아버지는 모세의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다고 선포하고 아들을 오븐에 넣었다. 이를 본 어머니가 아이를 구하려했지만 불이 온 몸에 퍼져서 실패하고 울면서 소리쳤고, 이 소리가 온 시내를 덮었다. 그래서 이웃들이 이 참변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나 유대인 소년은 상처를 전혀 입지 않았다. 소년이 ‘내가 교회의 빵을 받은 테이블에 무릎에 아기를 안고 있던 여인이 걸음으로 나를 감싸서 불이 나를 삼켜버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고백하였다. 그래서 어머니와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였고 아버지는 오븐에 던져졌다.²²⁾

투르의 그레고리에 의해서 쓰인 이 내러티브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졌고 12세기에는 수도원의 기도서에 수록되었다. 그리고 13세기에는 카스티야 방언, 네덜란드어, 영어, 불어로 이 기도서들이 번역되었다. 이야기는 번역되면서 강조점이 변화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심을 거부한 아버지가 불에 타죽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결말로 내용이 변화되었다.²³⁾ 유고는 이러한 내러티브를 『일화집』(*exempla*)에 삽입하였으며 15세기의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스콜라 코엘리 일화집』(*Scola coeli*, 도미니크 수도회의 Johannes Gobius Jr, fl. 1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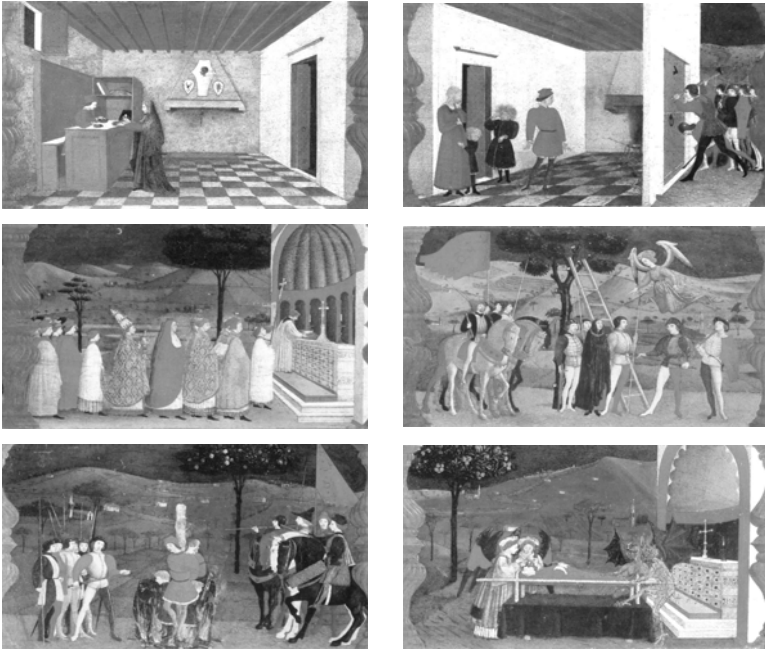
22) Gregory of Tours, *The Glory of Martyrs*, R. Van Dam ed. and trans. translated texts for Historians, Latin Series 3, (Liverpool Univ. Press, 1988), no.9, pp.29~31. 이 내러티브의 모태가 되는 내러티브가 존재한다. Pseudo-Bedan, *Ascelta*, PL XCIV, col. 557. St. Boniface에 의해서 기적이 베풀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23) James of Voragine, *Legenda aurea*, ed. T. Graesse, Leipzig, 1850, c 119, pp. 515~16.

에 수록되었다. 하나의 예로 고티에르 드 코앵시(Gautier de Coinci, 1177~1236)에 의해서 번역된 『노트르담의 기적들』(Les Miracles de Nostre Dame)에서는 이야기가 더 섬세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종결부분에서 어머니, 아들, 그리고 이 기적의 목격을 한 유대인들이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내게는 너무나 어렵다/ 내가 모든 왕국의 왕이지만, 그들을 너그럽게 봐주기가 어렵다.”²⁴⁾ 특별히 『일화집』이 평신도들을 위한 설교 자료를 모아놓은 책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내러티브는 널리 평민들 사이에 공유되었을 것이다. 하나의 예로서 “파리에 서 성마리아 교회 (Blessed Virgin) 가까이 거짓으로 기독교인으로 가장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부활절에 그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먹지 않고 입에 담아 집으로 왔다. 그는 다른 유대인들과 성체를 공격하였다. 그러다 결국에는 한 유대인이 성체를 칼로 찔렀다. 그리고 성체에서 피가 흐르자 유대인들은 놀랐다. 한 유대인이 성체를 꿇는 물에 던졌다. 그러나 성체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와서 거리로 흘러갔다. 대중들 가운데 사체가 있었고 그가 도착해서 성체를 거룩하게 하자 이러한 기적은 끝이 났다. 그리고 이웃들은 아직까지도 이를 피의 도시(Quarter of Blood)라고 부른다.²⁵⁾ 이러한 이야기들은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이야기 되었다.

24) A.P. Ducrot-Granderye, *Etudes sur les Miracles Nostre Dame de Gutier de Coinci*, Annales Academiae Scientiarum Fennicae B. 25, 2, Helsinki, 1932, pp.140~2.

25) Joan Young Gregg, *Devils, Women, and Jews* (New York: State Univ. of New York, 1997)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exemplum 을 다루고 있다.



Paolo Uccello 1465~1468
predella

이러한 내러티브를 이미지 한 것을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설명하면 a.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와 기독교여성이 성체와 겉옷을 바꾸는 장면, b. 불에 올려놓은 성체의 피가 밖으로 흐르는 것으로 걱정하는 아내와 아들과 딸의 모습과 이를 목격학 그리스도인들이 문을 부수는 장면, c. 기적의 성체를 성탁으로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 행진하는 모습, d. 성체를 판 기독교여성을 매달아서 사형하는 장면, e. 유대인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서 화형을 시키는 장면, f. 천사와 악마가 기독교여성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장면이다. 성체파괴 내러티브를 기초한 이러한 이미지들은 중세 후반에 흔하게 볼 수 있었다.²⁶⁾

26) Miri Rubin, *Gentile Tales*, pp.90~189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Ⅲ. 적대적 유대정서를 담고 있는 내러티브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

적대적 유대정서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유형이외에도 고리대금이나 벽에 독을 바르는 행위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3가지 유형의 내러티브가 가장 사실과 동떨어진 색채를 지니고 있다. 각각의 내러티브는 악한 유대인을 나타내주는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다. 세 개의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전개되었다.

1	부활절쯤 (때로는 다른 기독교의 축일)
2	시체가 발견된
3	소년
4	유대인들이 즉각 살인혐의로 체포됨
5	그러나 그들은 살인혐의를 부정함
6	권위자들은 이를 참고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음/ 유대인을 보호하려고함
7	그러나 말달 사제들은 적대적 유대정서가 담긴 설교를 통해서 폭도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일반인들의 목소리를 나타내준다
8	유월절에 피를 사용하는 의례에 대해서 세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증언을 받아낸다
9	유대인들이 고문을 받는다.
10	그들은 죄를 시인하지 않는다, 시인한다고 해도 노인 여성 어린이들의 경우이다.
11	모든 공동체가 죽거나 또는 추방을 당한다.
12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 몰수된다.
14	살인을 당한 소년은 순교자로 추앙된다.

1	유대인 소년이
2	기독교인 소년 친구와
3	교회에서 성체를 받음
4	유대인 아버지가 성체를 받은 아들을 오븐에 던짐
5	엄마가 구하려하였으나 실패하고 울부짖어 소리가 마을 전체에 퍼짐
6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임
7	오븐에서 꺼낸 아이가 무사함
8	마리아가 아이를 불에서 보호함
9	유대인 아버지가 오븐에 던져짐
10	소년, 어머니, 유대인 목격자들이 세례를 받음
11	기적을 목격하고도 기독교를 부인하는 유대인이 있음

1	부활절
2	욕심 많은 기독교여성
3	고리대금업을 하는 유대인 또는 거짓으로 개종한 유대인
4	성체와 돈 또는 물건을 교환함/ 또는 성체를 몰려 가져옴
5	유대인들이 모여서
6	성체를 칼로 찌름/ 또는 돼지에게 줌/ 그리고 불에 내던짐
7	성체에서 피가 흘러 거리로까지 감/돼지가 이상한 행동을 함
8	목격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고발함
9	사제가 성체를 축성하고 기적이 끝남 교회로 옮김/ 행렬이 이어짐
10	기독교여성이 처형을 당함
11	이 사건과 관련된 유대인들이 처형을 당함

내러티브는 몇 가지 공통된 점들을 지니고 있다. 기적이 발생하는 시기가 부활절이나 가톨릭 성일임을 알 수 있다. 유대인 아이와 여성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는 반면 유대인 남성은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성체나 성모 마리아가 주요한 주제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설명하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입장과 떡과 포도주가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님을 강조함으로써 화체설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성과 아이를 긍정적으로 표현

함으로써 성모마리아에 대한 이미지와 성자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속적 권력가들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진실을 왜곡하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으며, 현명한 사제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가톨릭교회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였을까? 단순히 유대인의 추방이나 대량 학살만을 목적으로 하였을까?

알렉산더는 선과 악을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인식론적인 것’이라고 이해한다.²⁷⁾ 악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구성으로 사회적 문화적 작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선이나 악은 생성이 문제이며 이러한 선·악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 또는 코딩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딩 구성을 누가 통제하느냐이다. 일반적으로 문화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부에 속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상부 계층의 관심이나 목적을 위해서 적합하게 코드를 구축한다고 할 수 있다. 13세기 이후에 문화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징이나 코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권력을 장악한 계층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코드의 집합적 상징체계에서 공동의 감정을 창출하고 유통시킨다. 문화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징의 통제자인 교회의 상부 계층은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내러티브를 유통시키었을까?

13세기 이후에 유럽교회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면서 체제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피해, 농민운동, 신흥부호의 등장 등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가장 교회를

27) 알렉산더, *윗글*, p.78.

위협하는 것은 교황이나 교권의 실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당시의 화체설을 반대하는 입장들이 존재하였고, 이들은 탁발수도승들을 통해서 평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론보다는 성모마리아의 존재와 화체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렇다면 적대적 유대정서를 통해서 얻으려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유대교가 직접적으로 가톨릭교회를 두렵게 할 만큼 공격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적대적 유대정서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의 음성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라스켈(Daniel J. Lasker)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유대교는 기독교에 대해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보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구약을 바탕으로 하기에 기독교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두 번째는 서유럽에서 유대교는 소수 민족의 종교로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적대적인 입장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본다.²⁸⁾ 그러나 12~13세기를 기점으로 유대교 안에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 논쟁을 시도하는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²⁹⁾ 이 시기는 기독교가 선교정책을 강도 높게 수행하면서 동시에 기독교내에 이단적인 요소들이 출현하기 시작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벌거(David Berger)는 기독교교리에 대한 의문을 담은 작품들은 기독교의 박해에 대항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³⁰⁾ 그리고 라스커와 스트람사(Stroumsa)는 유대교 작품에 나타난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는 요소는

28) Daniel J. Lasker, *Jewish Philosophical Polemics against Christianity in the Middle Ages* (Oregon: The Littman Library of Jewish Civilization, 2007)

29) Sapir Abulafia, *Christians and Jews in the Twelfth-Century Renaissance*; Lasker, "Jewish-Christian Polemics at the Turning Point."

30) David Berger, *The Jewish-Christian Debate in the High Middle Ages*, p.13.

이슬람이 사용한 틀과 기독교내의 이단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였다.³¹⁾

유대교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별히 삼위 일체와 예수의 정체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동정녀의 수태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있지 않고 동정녀가 수태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교리를 반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 보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화체설이라고 할 수 있다. 화체설에 반박하는 최초의 유대 작품들은 1367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성체를 더럽게 했다는 죄명으로 잡힌 하스다이(Hasdai Crescas)를 통해서 드러난다.³²⁾ 시몬(Simon Duran)과 셸(Shem Tovibn Shaprut)은 화체설과 관련해서 예수의 몸이 어떻게 빵 속으로 들어가는지를 문제 삼거나 또는 작은 몸이 어떻게 큰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³³⁾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13세기 이후에 화체설을 문제 삼았던 것은 유대교만이 아니라 이미 가톨릭교회 내부에서도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적대적 유대정서의 서사가 널리 퍼져있었고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다는 사실이다.

기독교 교리에 반박하는 유대교의 작품들은 유대교 고유의 것도 아니며 기독교의 정책이나 적대심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유대교의 화체설에 대한 반박은 유대교에 대한 적대적인 서사가 퍼졌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적대적 유대정서의 서사가 이전에도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더 강력하여지고 대량 학살까지 옮겨갈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미리(Miri

31) Lasker and Stroumsa, *The Polemic of Nestor the Priest*.

32) Baer, *History*, II, pp.38~39. 성체 모독에 대해서는 Cecil Roth, "Host, Desecration of," *EJ*, VIII, pp.1040~44. Roth는 성체모독과 1215년에 있었던 제 4차 라테란 공의회의 진술을 연결시키고 있다.

33) ST III, 76, 1; trans., Barden, p.97.

Rubin)는 내러티브 구조가운데 유대남성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아동과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소개하고 성체를 파괴함으로써 가톨릭의 화체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내용 안에 숨겨진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학대받는 아동과 여성이 개종하여 구원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모와 성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상대적으로 유대 남성들을 악의 상징으로 표현하였다고 설명한다.

무어(Robert I. Moore)는 13세기를 기점으로 유대인, 나병 환자, 다양한 이단적 사상들에 대한 박해가 심각해지는 이유를 중세가 개방적인 사회에서 폐쇄적인 사회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³⁴⁾ 프랑크 왕국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대인들은 루이 경건왕 때 프랑크 왕국의 변방을 지키면서 왕국을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⁵⁾ 그리고 제임스(Edward James)에 따르면 프랑스 가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유대인들이 덜 이주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로 회심하였기 때문이라 주장한다.³⁶⁾ 10세기경에 유대인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 등을 통해서 볼 때 제임스의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이디시어가 13세기 이전에는 발전되지 않을 고려할 때 인종이나 종교에 대해서 폐쇄된 사회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2세기를 기점으로 유대인들 안에서도 폐쇄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랍비 유다 함 하세드(1146~1217)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과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상업적 측면에서도 상호 분리될 것을 강

34) R.I. Moore, *The Formation of a Persecuting Society* (MA: Blackwell Publishing, 2007).

35) B. S. Bachrach, *Early Medieval Jewish Policy in Western Europe* (Minneapolis, 1977), pp.70~1.

36) Edward James, *Origins of France* (London, 1982), p.101.

조하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축성된 잔의 포도주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유대인들도 기독교제의식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전당포에서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³⁷⁾ 그리고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고리대금업자와 동일시하는 경향도 1차 십자군 전쟁이후에 나타난다. 보나르(Bernard of Clairvaux)는 1140년대에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유대적인(*judaisare*)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³⁸⁾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는 것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보다는 유대인들의 경제적인 활동이 제한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땅이나 포도원이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누구도 우리를 개방되고 탐욕스러운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구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억압한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서 우리를 더 밍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³⁹⁾

7~9세기에 유대인들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이 12세기를 기점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카잔(Robert Chazan)은 1000~1500 사이에 서유럽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시기에 서유럽에서 권력의 중심이 프랑스나 독일로 옮겨지고, 팔레스틴을 주요한 주거지로 삼던 유대인들이 1000년을 기점으로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톨릭 교인들과 접촉하게 되고 신학적인 대

37) Jacob Katz, *Exclusiveness and Tolerance* (Oxford, 1961), pp.93~105.

38) Mansi, 21, col. 529: Lester K Little, *Religious Poverty and the Profit Economy in Medieval Europe* (London, 1978), p.57.

39) Abelard, *Collationes*, 20 trans. Payer, p.33.

립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를 우려한 가톨릭 사제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성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카쯔(Jacob Katz)는 중세후기의 경제, 정치, 문화 등을 분석하면서 서유럽에서 종교와 시민으로서의 자율성을 행하던 유대공동체가 서유럽에서 점점 소수민족으로 분리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카쯔는 유대인들이 소수 민족으로 전락하는데 공헌한 유럽 대중들의 의식 안에 스며든 반유대적 정서의 기원을 찾고자 하였다(1971).

두 학자가 내러티브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적대적 정서를 형성함에 있어서 내러티브가 공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러티브는 아동과 여성을 선하게 표현하고 사건이 부활절과 성모기념일에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는 예수의 부활과 성모의 신학적 이해를 강화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대남성은 아이와 아내를 학대하고 성체를 모독하는 악의 상징으로 코드화되었다. 이러한 악으로부터 학대받는 아이와 여성을 구원하는 마리아는 선의 상징이 되었다. 악은 선량한 어린아이를 죽여 피를 뽑아 제사를 지내고 극단적으로는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존재이다. 당시 힘이 없는 아동과 여성은 마리아의 긍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화체설을 부정하는 악은 선을 파괴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발각되고 성체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이렇듯 성체를 다시 교회로 가져오는 것은 교구의 사제이다. 결과적으로 악에 의해서 죽거나 파괴될 순간에 기적을 통해서 선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러한 불경죄를 범한 악의 상징인 남성 유대인을 응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화체설을 부정하는 자는 모두 악의 상징이고 처벌하는 것은 악을 응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코딩은 사람들에게 내러티브를 통해서 화체설, 성모 마리아

아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옹호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 기도를 마친 떡과 포도주를 부정하려는 입장과 성모 마리아를 믿지 않는 세력은 ‘악’이고 이러한 악으로부터 성체를 보호하는 사제는 ‘선’이다. 유대남성과 같이 화체설을 부정하고 성모마리아를 거부하는 자는 모든 자는 ‘악’으로 일반화된다. 악의 상징은 유대남성은 죄가 없는 아이를 죽였으며 이는 예수를 죽인 자들로 일반화되었다. 선의 상징인 교회는 성모마리아의 도움으로 진리를 수호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인식론적 행위이고 그 결과는 자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유대 정서를 담은 내러티브는 정서적인 반응을 이끈다.

13세기 이후 기독교의 화체설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들의 출현은 가톨릭교회에게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화체설을 부정하는 입장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달되었고 교권과 교황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이 시점에서 13세기 이전에도 존재하였던 내러티브는 이러한 실추된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데 중요한 상징적 매체들을 제공하였다. 화체설을 부정하는 자는 유대인들과 같은 강박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는 성스러운 것들을 위협하는 유대인에 대한 강한 적대적 감정을 포함한다. 상징들은 예배에서 예화를 통해서, 매일 읽는 기도문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산되었고 기독교인들에게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형성하고 집합적으로 구조화된 강력한 의미와 정서를 유통시키면서 화체설에 반대하는 이단이나 유대인들을 제거하려하였다. 그리고 가톨릭교회는 악을 옹정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가톨릭교회의 코딩과 내러티브에 대응하는 유대교 랍비들의 반응을 찾아볼 수 있다. 아버랄드(Abelard)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아들을 교육한다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아들 중에 하나가 서기관이면 그는 부모와 다른 형제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율법에 대한 사랑에서 한 아들이 아니라 가능하면 모든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가르친다... 유대인들이 비록 가난하더라도 아들이 열 명이면 모두에게 돈을 벌기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도록 글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돈을 벌기위해서 가르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들만이 아니라 딸에게도 글을 가르친다.⁴⁰⁾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내러티브를 사용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아들이나 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우치게 한다는 성스러운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만, 기독교는 자신들의 가계를 책임질 한 명의 아들들에게만 교육을 시켜서 책임을 전과시킨다고 매우 세속적인 이유에서 글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은 성과 속이라는 이중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세속적인 사람들로 상징화되는 기독교인 남성은 힘없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탐욕스러운 목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것도 모든 자녀에게가 아니라 장자에게만 교육을 하고 다른 힘이 없는 자녀들은 교육의 특혜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유대교 남성은 힘이 없는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기 위한 성스러운 목적으로 약자를 상징하는 어린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들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상호 유사성을 지니게 된다. 남성은 억압을 하는 존재이고 여성과 어린아이는 약자들로 상징으로 코딩되었다.

40) Beryl Smally, *The Study of the Bible in the Middle Ages* (Oxford, 1941), 78; Robert Chazan, *Medieval Jewry in Northern France* (Baltimore and London, 1973), p.52에서 재인용.

유대인들에 대한 살인 누명을 새롭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구성한 이야기가 18세기 기록되었기는 하지만 16세기의 인물인 칼로니무스(Kalonymous)의 전설이 있다. “우리는 랍비 칼로니무스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전승된 이야기를 들었다. 무슬림이 자신의 아들을 밤에 살해하여 그 시체를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당에 던졌다. 그리고 랍비 칼로니무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죽은 소년이 입을 열어서 그를 사람들이 죽여서 시체를 회당에 던졌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과 통치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이 칼로니무스 랍비를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불렀다.”⁴¹⁾ 이 내러티브는 기존의 유대인 유아 살해 내러티브로 새롭게 구성하면서 내용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살인자는 유대인의 적(기독교인이나 또는 무슬림)임을 알 수 있다. 유대인의 적은 유대인이 아닌 소년을 유월절에 살해하였다. 여기서 소년은 귀족 가문의 아이이거나 가난한 집안의 아이로 팔려온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빵(matzot)을 만드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고소된다. 유대인들은 누명을 벗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원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 구원은 선지자 엘리야 또는 잘 알려진 랍비 또는 순결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들은 살해된 소년을 살려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도록 해준다. 여기서 죄의 심판과 구원이 나타난다. 살인자는 심판을 받고 유대인 공동체는 구원을 받는다.⁴²⁾

41) Haim Joseph David Azulai, *Simhat Ha-Regel* (Leghorn, 1782), ‘nishmath’ 주석.

42) 이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다시 쓰이면서 이렇듯 내용의 줄거리는 유지하지만 살인범이나 구속자들이 변화된다. 특별히 5개의 같은 줄거리의 내용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Shapira가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번역해놓은 것을 참조하였다. Haim Joseph David Azulai, *Simhat Ha-Regel* (Leghorn, 1782), 이는 Tamar Alexander, “A Legend of the Blood Libel in Jerusalem: A Study of a

이상의 내러티브들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내러티브와 인물 등에서 유사성을 보여준다. 여전히 유아는 희생자였고, 유대인을 궁지에 빠뜨린 사람들은 악의 상징이다. 그러나 선의 상징인 랍비가 유대인을 구원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악은 징계를 받고 선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구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설명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성된 내러티브도 선/악과 심판/구원이라는 이중 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내러티브를 유포한 사람은 유대인 가운데 문화권력인 상징을 통제하는 랍비 등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 볼 수 있다. 그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선, 악이라는 이중구조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구조는 16세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지만 그 기록이 18세기에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중세에 폭력을 수반한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적 내러티브가 여전히 존재하였고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러티브는 폭력을 동반하지 않았지만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을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이는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적 내러티브들이 여전히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V. 나오는 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적대적 유대 정서를 문화사회학적 접근을 통해서 분석해보면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 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 적대적 유대정서의 발전이나 폭력이라는

Process of folk-Tale Adaptation” in *International Folklore Review* vol. 5 (1987), pp.60~74에 수록되었다.

결과에 있어서 문화적 요소들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 뒤에는 상징을 통제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화사회학적 접근을 통해서 적대적 유대 정서 형성을 설명하는데 더 정교한 해석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서 형성에는 교회지도자들이 이항대립 구조와 내러티브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유포한데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9세기에는 유대교에 대해서 호의적이던 경향이 12세기 후반부터 폐쇄적인 입장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데는 가톨릭교회가 위기의식을 감지하고 상징을 통제함으로써 교리에 반대하는 이단들과 다른 소수 그룹들을 악으로 코딩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역사연구에서 이러한 코드와 집단 내러티브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 의미작용, 이러한 내러티브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자료들을 확보한다면 좀 더 깊은 연구의 차원을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적 현상에 대한 문화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문화사회학을 발전시켜 역사 연구에 접목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과 사건들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차후의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문화사회학, 적대적 유대정서, 내러티브, 인식론, 유아 살해 의례, 성체파괴, 이원론적 선.악 구조, 상징, 문화권력

(논문투고: 2010.10.15/ 논문심사완료: 2010.11.18/ 논문게재 확정일: 2010.11.19)

참고문헌

1. 1차 문헌

- Gregory of Tour, *The Glory of Martyrs*. R. Van Dam ed. and trans. Latin Series 3.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1988.
- Jacques de Vitry. *The Exempla*. Thomas Frederick Crane, ed. TN: LaVergne, 2010.
- Marcus, Jacob Rader. *The Jew in the Medieval World: A Source Book: 315-1791*. Cincinnati: Hebrew Union College Press, 1999.
- Saperstein, Marc (ed. and trans.). *Jewish Preaching 1200-1800: An Anthology*. New Haven: Yale Univ. Press, 1989.
- Yeshiva University Museum. New York, Manuscript record of the trial against the Jews of Trent” “Prozess gegen die Juden von Trient”.

2. 2차 문헌

- 최종렬 역. 『뒤르케임주의 문화사회학:이론과 방법론』. 서울: 이학사, 2007.
- Alexander, Jeffrey C. 『사회적 삶의 의미: 문화사회학』. 박선웅역. 파주:한울, 2007.
- Alexander, Tamar. “A Legend of the Blood Libel in Jerusalem: A study of a Process of Folk-Tale Adaptation.” *International Folklore Review* 5(1987): 60-74.

- Almog, Shmuel, ed. *Antisemitism Through The Ages*. Oxford: Pergamon Press, 1988.
- Appleby, Joyce ed. *Telling the Truth About Histor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4.
- Baron, Salo Wittmayer S. *A Social and Religious History of the Jews: Later Middle Ages and Era of European Expansion 1200-1650*. New York: Columbia Univ., 1973.
- Ben -Sasson, Haim Hillel. *A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Mass: Harvard Univ., 1976.
- Bergman, Werner. *Error Without Trial: Psychological Research on Antisemitism*.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8.
- Chazan, Robert. *Medieval Jewry in Northern France: A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Baltimore, ML: London: John Hopkins Univ., 1973.
- _____. *The Jews of Medieval Western Christendom 1000-1500*. New York: Cambridge Univ., 2006.
- Clyton, M. *The Cult of the Virgin Mary in Anglo-Saxon England*. Cambridge: Cambridge Studies, 1990.
- Cohen, Jeremy. *The Friars and the Jews: The Evolution of Medieval Anti-Judaism*. Ithaca, London: Cornell Univ.' 1982
- Cohen, Mark R. *Under Crescent & Cross: The Jews in the Middle Ages*. New Jersey: Princeton Univ., 1995.
- Cohn, Norman. *Warrant for Genocide: The Myth of the Jewish World-conspiracy and the Protocols of the Elders of Zion*. New York: Harper & Row, 1966.

- Dahan, Gilbert. *The Christian Polemic against the Jews in the Middle Ages*. trans. Jody Gladding. Indiana: Univ. of Notre Dame, 1998.
- Daniel, E. V. *Anthropology Violence*. New Jersey: Princeton Univ., 1996.
- Donovan, C. *The De Braille Hours: Shaping the Book of Hours in Thirteenth Century Oxford*. Oxford: Oxford Univ. 1991.
- Dundes, Alan. *The Blood Libel Legend: A Casebook in Anti-Semitic Folklore*.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 1991.
- Edles, Laura Desfor. *Cultural Sociology in Practice*. Mass.: Blackwell Pub., 2002.
- Gilman, Sander L. and Steven T. Katz, eds. *Anti-Semitism in Times of Crisi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1.
- Gregg, Joan Y. *Devils, Women, and Jews: Reflections of the Other in Medieval Sermon Storie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7.
- Hay, Malcolm. *The Roots of Christian Anti-Semitism*. New York: Freedom Library Press, 1981.
- Hirsch, Jerbert and Jack D. Spiro, eds. *Persistent Prejudice: Perspectives on Anti-semitism*. Fairfax, VA: George Mason University Press, 1988.
- Hsia, R. PO. Chia. *Trent 1475 Stories of A Ritual Murder Trial*. Conn.: Yale Univ., 1992.

- Katz, Jacob. *Tradition and Crisis: Jewish Society at the End of the Middle Ages*. New York: Schocken Books, 1971.
- Langmuir, Gavin I. *Toward a Definition of Antisemit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 _____. *History, Religion and Antisemitism*. London: London Univ. 1990.
- Lasker, Daniel J. *Jewish Philosophical Polemics against Christianity in the Middle Ages*. Oregon: The Littman Library of Jewish Civilization, 2007.
- Lewis, Bernard. *Semites & Anti-Semites: An Inquiry into Conflict and Prejudice*. New York: W.W. Norton, 1986.
- Moore, Robert I. *The Formation of a Persecuting Society*. MA: Blackwell, 2007.
- Nicholls, William. *Christian Antisemitism: A History of Hate*. Northvale, NJ: Jason Aronson, 1993.
- Nirenberg, D. *Communities of Violence Persecution of Minorities in the Middle Ages*. New Jersey: Princeton Univ., 1996.
- Noonan, John T. Jr. *A Church that Can and Cannot Change: The Development of Catholic Moral Teaching*. Notre Dame: Univ. of Notre Dame, 2005.
- Parkes, James. *The Conflict of the Church and the Synagogue. A Study in the Origins of Antisemitism*. Cleveland. 1961.
- Poliakov, Leon. *The History of Anti-semitism*. 3v. New York: Vanguard Press, 1965~74.
- Rigg, J. M. et.al. *Calendar of the Plea Rolls of the Exchequer of*

- the Jews Preserved in the Public Record Office*. London: Macmillan, 1992.
- Rubin, Miri. *Corpus Christi: The Eucharist in Late Medieval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 1991.
- _____. *Gentile Tales: The Narrative Assault on Late Medieval Jews*.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1999.
- Sapir Abulafia, Anna. *Christians and Jews in the Twelfth Century Renaissance*. London: Routledge, 1995.
- Scholem, Gershom G. *On the Kabbalah and Its Symbolism*. trans. Ralph Manheim. New York: Schocken, 1965.
- Schrekenberg, H. *The Jews in Christian Art: An Illustrated History*. London: London Univ. 1996.
- Seltzer, Robert M. *Jewish People, Jewish Thought, 71-92*. Hanover: Brandeis Univ. Press, 1994.
- Smith, Philip. 『문화이론: 사회학적 접근』. 한국문화사회학회 역. 서울: 이학사, 2008.
- Strauss, Herbert A., ed. *Hostages of Modernization: Studies on Modern Antisemitism 1870~1933/9*. 2v. Berlin: Walter de Gruyter, 1993.
- Weinberg, Meyer. *Because They Were Jews: A History of Antisemitism*. New York: Greenwood Press, 1986.
- White, H. *The Content of the Form: Narrative, Discourse and Historical Representation*.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 1987
- Wistrich, Robert S. *Antisemitism: the Longest Hatred*. New York:

Pantheon, 1991.

Wolftihal, Diane. *Picturing Yiddish: Gender, Identity, and Memory in the Illustrated Yiddish Books of Renaissance Italy*. Leiden: Koninklijke Brill, 2004.

A Cultural Sociological Approach to the Late Medieval Anti-Semitism

Lee-Park, Pilleun

In this paper, I have analyzed how forming the anti-Semitic affects in the late medieval Europe. My research explores the cultural effect of developing and extending the anti-Semitism, in medieval Christendom's visual arts, its drama, and its homiletics there appears a systematic vilification of the Jew who had persecution. The patristic and medieval church created its own reality of the Jew, a subjective perception that had served maintaining its own privilege. In the growing number of heretical Christian sects, the church became an excluded and forming its own persecuting society. At the certain time, a local clergy had accused the Jews for being blood libels or ritual murders, or the Holy Host destroyer. This narrative justified their persecuting or massacre toward the Jews who were the symbols of evils. This story also constituted the dualistic paradigm such as the good/the evils, sacred/secular.

Jews had relatively lived a stable life during the 9th and 10th centurie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Frankish empire. However, in late 13th century, since the anti-Semitic mood started to spread

rapidly for a while, it caused violence and a large scale massacre. Finally by the sixteen century, the Jewish responded this violence by transforming these narratives. These narratives had same dualistic structures, such as good/evil, sacred/profane, and Christian or Muslim/Jews etc.

In this research, I have concluded that the cultural elements influenced the anti-Semitic with its own political, economical, and religious elements. In confronting the chaotic social situation, the people construct the narratives which influence the people's perception and emotional domain.

Key Words : Cultural sociology, Anti-Semitism, Narratives, Persecution, subjective perception, blood libels, ritual murder, Holy Host destroy, dualistic paradigm